

경남도, 해양관광 프로그램 운영… “차별화 경험 선사”

한국관광공사·엑스크루 협력
‘남남해·다있찌 통영’ 등 진행
“경남, 해양관광 중심지 조성”

경상남도과 경남관광재단이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엑스크루 플랫폼을 통해 아오도어 해양관광 상품을 출시한다.

엑스크루는 국내 최초 액티비티 소셜 플랫폼으로 5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관광 상품 운영에 특화된 기업이다. 최근 경남관광기업 지원센터의 ‘2025 경남관광스타트업 6기’ 성장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부울경지사와 협업으로 남해와 통영 등 도내 대표 해양관광지를 배경으로 한 참여형 해양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통해 경



경상남도는 엑스크루 플랫폼을 통해 아오도어 해양관광 상품을 출시한다. /경상남도

남 해양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다.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되는 4가지 관광상품은 ▲남해의 미식 아이템을 활용하는 ‘남남해’ ▲통영의 다찌문

화를 내세운 ‘다있찌 통영’ ▲사랑도를 무대로 하는 ‘우정도 사랑도’ ▲육지에서 진행되는 ‘육망의 보물섬 육지도’ 등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엑스크루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참여자 모집과 콘텐츠 확산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도 본격 추진한다. 배너 노출, 푸시 알림, SNS 후기 확산, 프로모션 영상 제작 및 게시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그램 현장을 담은 1분 분량의 영상 2편을 제작해 관광상품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한국관광공사 부울경지사와 엑스크루 간 4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해양관광

상품 기획·운영과 마케팅 수행, 지원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경남 아웃도어 해양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이번 해양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경남의 독특한 해양 자원을 부각하고, 차별화된 관광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이를 발판으로 경남을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중에는 해양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지역 기업 육성지원 공모가 예정돼 있으며 경남의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신규 상품 개발과 상품화 역량을 갖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농협중앙회, 영양군 산불 피해복구 성금 전달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영양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성금 4억 원을 전달했다. 농협중앙회 및 경북지역본부는 농민들을 포함한 영양군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부를 결정했으며 성금은 지역 내 산불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복구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속도

평화시장 등 사업 대상지 확정
내년부터 부지 매입 절차 추진

부산시는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 주차장을 건립 또는 증축 지원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존 시장 공영주차장을 개량 및 보수하는 ‘주차장 개보수사업’ ▲시장 인근의 공공주차장이나 민간 사설 주차장 이용료를 지원하는 ‘주차장 이용보조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사업 대상지는 총 9곳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3곳(당감골목시장·수영팔도시장 주차장 건립, 망미중앙시장 주차장 증축) ▲주차장 개·보수 3곳(장림골목시장, 부산평화시장, 명지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3곳(창신상가, 부산남문시장, 부산진시장) 등이다.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진행해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적정성 여부를 심사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최종선정협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 9곳을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95억 1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3곳 총 91억 7000만원, 주차장 개·보수 3곳 총 1억 4000만원, 주차장 이용보조 3곳 2억원이다. 시는 대상 사업지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을 이달 말까지 중기부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주차장 부지 매입 절차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진구 당감골목시장의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당감시장·당감새시장 등 인근 시장의 이용객도 저렴한 이용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돼 3개 시장의 상권 활성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형준 시장(사진)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시장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차환경개선을 포함해 시설현대화 등 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주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도, 풍력 현장 기술인력 키운다

에너지기술평가원 공모사업 선정
국비 30억 등 사업비 64억 확보

경북도가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풍력 현장 기술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64억원(국비 30억, 도비 17억, 군비 17억원)을 확보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내 풍력 운영관리·유지보수 산업의 해외 의존 탈피를 위해 현장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된다.

경북도가 주관하고 영덕군과 포항테크노파크가 참여한다.

경북도는 2020년 8월 산업부로부터 에너지 분야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거점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돼 풍력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왔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핵심 교육 훈련 시설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종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190억원(국비 76

억, 도비 57억원, 군비 57억원)이 투입돼 2021년 7월부터 약 3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에 준공됐다.

경북도는 국제기준의 교육훈련기자재 21종을 구축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앞으로 세계풍력기구(GWO) 국제인증을 획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초기술교육(BTT) 훈련시설은 전국 최초로 구축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교육훈련기자재 구축이 완료되면 풍력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수요기업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하고 국제 기준의 유지보수 전문 인력을 양성해 국내 풍력산업 현장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 선정으로 경북도를 넘어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획기적인 발걸음을 하게 됐다. 경북의 풍력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안동(경북)=김준환 기자 kih9@



수협중앙회, 영덕군 산불피해 어업인 현장 지원

수협중앙회는 지난 1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영덕군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어업인들의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수협중앙회는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영덕군에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 김광열 영덕군수(왼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무안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추진

무안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 공공·상업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어 국비 9억원을 확보했다. 국비를 포함한 총 39억원을 투입해 9개 읍·면 470개소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안(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신안군

‘청년바다마을 사업’ 최종 선정

전남 신안군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청년바다마을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바다마을’ 사업은 청년들이 귀어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원사업으로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군은 대상 사업지구를 여촌뉴딜300사업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된 하우리항과 진리항이 있는 임자도로 선정했으며,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여촌인구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목포시, ‘이충무공 탄신제’ 거행

이상진 부시장 등 200여명 참석

목포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80주년을 맞아 ‘이충무공 탄신제 480주년 기념행사’를 고하도 모충각에서 28일 엄숙히 거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목포시장 권한대행 이상진 부시장을 비롯해 해군 제3함대사령관, 이충무공 목포지구기념사업회 임원, 도·시의원, 해군 및 해경 관계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충무공의 불멸의 업적을 기리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탄신제는 충무공의 영령을 맞이하는 강신 의식을 시작으로, 전통 제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목포시립합창단과 해군 제3함대 군악대의 ‘충무공의 노래’ 합창이 울려 퍼지며 장엄한 분위기 속에 행사의 막을 내렸다.

또한 유달산 이순신 동상 앞에는 추모 화환이 배치되어 시민 누구나 충무공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함께 기릴 수 있도록 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시민 참여형 공모전… 대상 100만원

포항시는 5월 12일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동빈대교’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동빈대교는 남구 송도동과 북구 향구동을 잇는 총연장 395m, 왕복 4차로 규모의 교량으로, 단절된 도심 남북을 연결하고 교통 흐름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포항운하, 죽도시장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돼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총사업비 784억 원이 투입된 이 교량은 올해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항시는 ‘동빈큰다리’, ‘동빈교’ 등 기존 명칭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교량의 상징성과 대중성을 높이기 위



동빈대교 조감도.

해 시민 참여형 공모전을 기획했다.

응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성·활용성·독창성·대중성을 고려한 이름이면 된다.

공모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대상(1명) 100만 원 ▲우수상(1명) 50만 원 ▲장려상(2명) 각 25만 원 상당의 포항사랑상품권이 수여된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